



◀ 개회사(대한전기협회 박천진 상근부회장)

‘제46회 전기의 날’ 기념 2011 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 개최



▲ 격려사(지식경제부 임찬왕 전력산업과장)



▲ 축사(한국서부발전 김문덕 사장)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



▲ 한국전기규정 제정협력 양해각서 체결

▲ 공로패·감사패 수여

▲ 특강(한남대학교 함선필 교수)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는 '제46회 전기의 날'을 기념해 지난 4월 13일부터 3일간 강원도 평창 소재 보광휘닉스파크에서 '2011년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을 개최했다.

매년 4월 10일 전기의 날을 기념해 마련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은 '공중의 안전, 전기설비의 안전, 전기사업의 효율화는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함께'라는 주제로 지능형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진화 등 전력산업의 현안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전기협회와 대한전기학회(회장 김문덕),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회장 이복희), 한국안전학회(회장 정재희) 등 4개 단체가 '기술기준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병행되었다.

주요 행사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세션(전압체계 개편, 접지시스템 개선사항 등)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공청회 ▲발전설비(화력, 용접, 수력) 기술기준 세션 ▲신재생에너지 및 지능형전력망 기술기준 세션(직류배전, 분산형 전원계통, 태양광, 전기자동차 등) ▲풍력발전 표준화 워크숍 ▲전문기술분과위원회(접지·풍력 분과) 등이 진행되었다.

한편 전력산업 발전에 큰 공을 세운 11명의 전기인들에게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이 수여됐으며, 신명철 전기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과 김태우 남부발전 처장이 공로패를, 이대훈 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KEA